



Market Index / 19일

코스피지수 ▲ 4904.66 +63.92	코스닥지수 ▲ 968.36 +13.77	유가(WTI, 달러) ▲ 59.34 +0.26	환율(원)	1USD 1499.79 100¥ 950.32	팔매 1448.21 917.64	1EUR 1748.37 1CNY 222.43	팔매 1680.15 201.25
---------------------------	--------------------------	------------------------------	-------	-----------------------------	----------------------	-----------------------------	----------------------

외국인 관광객 증가 속 제주 점유율 '주춤'

지난해 11월 방한 관광객의 9.9% 점유 '한 자릿수' 중국 관광객 증가세 속 월간·누적 점유율 하락 흐름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 속 방한 외국인 중 제주 점유율은 전월 대비 하락하며 주춤한 모습이다.

제주관광공사가 최근 발표한 '제주 외국인관광객 입도통계(2025년 11월)'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5만816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159만 6939명)도 전년 대비 17.3% 증가했

으며, 방한 외국인 가운데 제주 점유율은 9.9%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8.9%)보다 1.0%포인트(p) 상승한 수치이지만 전월(12.2%)과 비교하면 2.3%p 하락해 지난해 4월부터 유지하던 두 자릿수 점유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다.

월별 추이를 보면 제주 점유율은 지난해 4월(11.3%)을 기점으로 5월 13.2%→6월 14.1%→7월 15.0%까지 이어진 상승세가 8월(13.5%) 하락 전환한 이후 9월 12.8%→10월 12.2%→

11월 9.9%로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 누적 점유율도 4월 10.3%로 두 자릿수를 회복한 후 5월 10.9%→6월 11.5%→7월 12.1%→8월 12.3%로 완만한 오름세에서 9·10월 각 12.3%에서 11월 12.1%로 소폭 내리며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국적별로 보면 제주 외국인 관광 시장을 주도하는 중국 관광객의 누적 점유율이 최근 하락 흐름을 보이며 지난해 11월 기준 30%를 밑돌았다. 지난해 1~11월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17.4% 증가한 210만8677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 관광객은 151만여 명으로 약 7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508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18.4% 증가해 제주를 찾은 중국 관광객 증가율(15.8%)을 웃돈 가운데 제주 점유율은 29.7%로 전년(30.4%)보다 0.7%p 낮아지며 5개월간 이어진 30%대 점유율이 11월 들어 30% 아래로 내려갔다. 월별로도 방한 중국 관광객의 제주 점유율은 9월 31.4%에서 10월 28.3%, 11월 24.7%로 낮아졌다.

한편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 다음으로 비중이 큰 대만 관광객의 제주 점유율은 누계(1~11월) 기준 12.1%로 전년 동기(11.0%)보다 1.1%p 상승했다. 오은지기자

경영회복 보증·지역제한 입찰 금액 상향 조정 경제정책협의회 '민생회복·체질 개선' 성장 전략 발표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제주경제의 '점프업(JUMP-UP)'을 목표로 7대 정책 방향에서 22개 분야, 88개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는 소상공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위기징후 알람 모형'을 구축해 매출액 및 신용등급 하락 등 위기 신호가 감지되면 경영회복 특별보증(300억원), 폐업 및 재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중소 건설업체에는 240억원 규모의 특별신용

보증을 지원한다. 또 지역 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을 150억원으로 상향해 수주 여건을 개선한다.

내수 진작 대책으로 지역화폐 '탐나는진' 발행 규모를 5000억원으로 늘리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1% 이하 초저금리 생계대출을 시범 도입한다.

이와 함께 펌리스 반도체(반도체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설계·개발만 담당하고 생산은 위탁하는 기업)와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한다.

오영훈 지사는 "올해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의 민생 회복에 최우선을 두고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도 확실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기자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서비스와 생계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다.

I 유형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에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이다. 청년의 경우 중위 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자가 I 유형에 해당한다.



NH농협은행 제주본부는 최근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NH농협은행 제주본부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제주농협 제공

"현장 중심 경영 강화... 지역경제 기여"

NH농협은행 제주본부, 사업추진 결의대회

NH농협은행 제주본부가 올해 현장 중심 영업 강화와 책임경영 실천으로 새해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NH농협은행 제주본부는 최근 제주본부 회의실에서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NH농협은행 제주본부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2026년 주요 사업추진 방향과 경영방침을 공유하고,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영 환경 속에서도 전 사업 부문에서 실행 중심의 사업추진을 통해 경영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와 함께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도 병행해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NH농협은행 제주본부 고은정 본부장은 "2026년에는 현장 중심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선도 금융기관으로서 농업·농촌은 물론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농협은행의 역할을 분명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코스피, 사상 첫 4900대... '오천피' 코앞 역대 2번째 최장기간 12거래일 상승... 외국인 '사자'

코스피가 19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 4900선을 돌파했다. 코스닥지수도 960선을 넘어서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3.92포인트(1.32%) 오른 4904.66에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품의 지수 '오천피'(코스피 5000)까지는 불과 95포인트가량만 남겨 뒀다.

지수는 전장보다 11.34포인트(0.23%) 내린 4829.40으로 출발한 뒤 장 초반 보험권 내에서 등락했다. 그러나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뒤 오름폭을 확대, 한때 4917.37까지 올라 장중 기준 역대 최고치도 경신했다. 또 12거래일 연속 상승해 2019년 9월 4~24일(13거래일) 다음으로 가장 긴 연속상승일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5473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린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7507억원, 243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1232억원 '사자'를 나타냈다.

코스피도 장 초반 하방 압력을 받았다. 다만 각종 외국인의 매수세가 거세지면서 지수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최근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를 계기로 로보틱스 기대감이 커진 현대차그룹주를 비롯해 방산·조선주가 동반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한편 이날 '불장'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한 종목은 489개로, 상승 종목(398개)보다 많아 여전히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지속됐다. 업종별로 보면 운송장비(7.08%), 오락문화(5.57%), 철강소재(2.07%) 등이 올랐으며 헬스케어(-2.47%), 제약(-1.15%) 등은 내렸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13.77포인트(1.44%) 오른 968.36에 장을 마치며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연합뉴스

제주시정소식

「에코촌 유스호스텔」 시설 이용 안내

- 주소: 제주시 조천읍 북촌로 376-9(동백동산 인근)
- 주요시설: 관리동(휴게실, 강당), 숙박동(19객실·126명), 야외무대, 잔디광장 등
- 이용대상: 청소년, 시민, 관광객 등
- 이용방법: 누리집* 및 전화 예약(20명 이상 단체의 경우)
*누리집(https://www.jejeusi.go.kr/eecochoon/main.do)
- 프로그램: 동백동산습지 탐방 및 환경교육, 런케이션 숙박 지원 등
- 주변관광: 동백동산, 함해수욕장, 예코랜드, 스누피가든, 거문오름 등
- 개편사항: 요금인하(2인실) 및 감면 확대(적용일: 2025. 12. 24.)
- 시설사용료

구분	사용료(원)		비고
	청소년	어른	
객실	2인실	45,000	객실당
	4인실	84,000	
	10인실	181,800	
부대 시설	강당	30,000	1시간당
	야외무대	20,000	

○ 감면기준

구분	감면율
①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시설사용료 면제 객실 사용료 50%
② 기초생활수급자, 제2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가족, 두자녀가정, 한부모가족	객실 사용료 50%
③ 제243사건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 혜택증 발급자	객실 사용료 30%
④ 제243사건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기타	객실 사용료 10%

○ 문의: 제주시 기후환경과(☎ 064-728-7500)

서귀포시정소식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납부기간: 2026. 1. 16. ~ 2. 2.
- 납세의무자: 2026. 1. 1. 현재 과세대상 면허 보유자
- 납부방법
 - 고지서상 표기된 입금은행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이용 납부
 - 신용카드 납부(세무과, 읍·면·동 방문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고지서 납부
 - 금융기관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 자동이체 납부 및 ARS 자동입금전환(☎142211) 납부
 - 인터넷 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을 통한 납부
 -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설치 후 납부
- 문의사항: 서귀포시 세무과(☎ 064-760-2318), 각 읍·면·동 주민센터

2026년 서귀포 원도심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알림

- 신청기간: 2026. 1. 14.(수) ~ 1. 30.(금)
- 신청자격: 서귀포시에 소재를 두고 서귀포시 동지역(원도심)에서 문화예술사업 또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또는 법인) 및 개인
※ 타 부서기관에서 지원받는 유사·중복 사업은 제외
- 지원분야: 공연, 전시 및 기타 문화예술 활동 등
- 지원한도: 최대 8백만원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신청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 접수 및 문의: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064-760-2572)

제9회 제주국제실내악페스티벌 개최 알림

- 공연기간: 2026. 2. 5.(목) ~ 2. 8.(일) / 총 5회 공연
- 공연장소: 김정문화회관 공연장
- 공연내용: 실내악과 성악, 클래식과 재즈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으로 폭넓게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공연
- 관람료: 전석 1만원 / 전 연령 관람
- 티켓예매: 2026. 1. 19.(월) 10:00~ / 서귀포e티켓
- 공연문의: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064-760-3793)

*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의료 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축)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법원 시청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일) 祚(조)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누출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림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 064.742.6234

☎ 010.7599.6234